

조희성님이 이긴자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과정

이긴자 후보자를 전도해 오라

해와 이긴자가 수많은 사람을 이긴자로 키워 봤지만은 연단을 받다가 전부 도망을 가는 겁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마라, 가족을 생각하지 마라,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라, 참견하면 참견하는 음란죄요, 관심을 가지면 관심의 음란죄라고 지적을 하면서 개 패듯 하는 겁니다. 누가 매 맞고 그 연단 받을 사람 있겠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밀실에 있는 식구들과 아울러 해와 이긴자가 이긴자 후보자가 밀실에 돌아오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긴자 후보자라고 꿈을 꿔던 겁니다. 지 선생이라고 신림동 살았는데 그 사람이 망원동 해와 이긴자 집에 늘 다니면서 기도생활을 했던 겁니다. 지 선생에게 이 사람을 전도해오라는 명령이 떨어지 겁니다.

기적을 행하던 조희성님

이 사람 사무실에 그 지 선생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주 은혜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양반, 바로 여자한테 이 분을 만나보시면 조 전도사님이 알 겁니다." 하는 겁니다. 지 선생의 여자 동생이 아파서 다 죽어가는데 아무리 훌륭한 전도사를 모셔다가 예배를 봐주도 낫지 않고 차도가 없었니까 이 사람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을 찾아와서 자기 동생을 고쳐달라고 애걸복걸 애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 선생님 집, 신림동까지 가서 매일 예배를 봤더니 동생의 병이 점점 차도가 나아서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의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은혜자인 것으로 이 사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무슨 병이든지 기도만 하면 낫는 겁니다. 미친 사람도 고치고, 앓은뱅이도 일으키고, 기적을 많이 행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런 기적을 행하면서 말을 못하

게 했습니다. 병이 나왔다고 누구한테 자랑만 하면 그 병이 도져서 죽으니까 병이 낫다는 말을 누구한테든지 하지 말라고 신신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병을 고쳤다는 것이 소문이 안 난 겁니다.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청와대 옆에 청운동에 사는 임집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임집사라는 사람 집에서 이 사람이 예배를 봐주고 그 집에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배를 보면 막 은혜창파를 이루고, 말할 수 없이 은혜가 받아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하늘의 사람 해와 이긴자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지 선생한테 전도를 받고 망원동 해와 이긴자 집에 찾아간 겁니다. 해와 이긴자 집에 대문을 열고 문턱을 넘어갈 때에 바게스로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생수체험이 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서 거꾸러진 거죠? '야, 이 분이 보통 은혜자가 아니로구나!' 하고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탁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웬만한 사람한테는 무릎 꿇고 앉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릎을 탁 꿇고 앉아서 그 해와 이긴자 말씀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꿈이 꾸어질 겁니다.' 그래요. '나는 꿈이 없는 데요.' 예, 그렇습니까. 오늘부터 꾸어진다니까 두고 봐. 오늘부터 꿈이 꾸어줘요.' 그럼 그걸 노트에다가 전부 적어서 내일 아침에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꿈을 꾸는 노트에 적어서 꿈 이야기를 전부 읽어주니까 해와 이긴자가 여자에게 이 사람이 생각한 마음을 전부 말하는 겁니다. 꿈에 그게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행복받는 연단

이 사람이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려



구세주 조희성님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그렇게 집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음란죄입니다." 집 생각도 하지 말고 과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야단을 맞고 돌아와서 생각을 아무리 안 하려고 애를 써도 생각이 나는데 어쩔 거야. 생각이 저절로 나오요. 가족을 생각을 안 하려고 이 사람이 애를 쓰고 기를 썼던 겁니다. 내가 밀실에 들어갈 때에 지금 미국에 NTU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애가 그때에 두 살 때입니다. 어린 것을 놔두고 이 사람이 밀실에 들어갈 때에 이 사람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말도 못하는 어린 아이에게 내가 너를 두고 이제 집을 떠나가는데 내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테니 기다려라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밀실에 들어가서 늘 그 어린 아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뒤돌아보는 음란죄에 걸려서 야단을 맞다가 나중에 주먹따귀를 갈기기를 시작하는데 주먹따귀를 맞으면서 이 사람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맹세는 하지만은 또 돌아서기만 하면 또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해. 그걸 거듭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려

고, 가족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기를 써봤지만 길어봐야 보름이예요. 보름 동안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다음에는 나도 모르게 생각이 뻥 뚫어지고, 그래서 또 주먹 따귀를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를 여러 번 거듭했던 겁니다. 그러가지고 이 사람이 과거를 생각하려 할 수 없는 단계에 오르자, 그 다음에는 참견하는 음란죄를 짓지 말라고 했지만은 아무리 안 하려고 하지만 상대방이 잘못된 걸 보고 어찌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원래 이 사람은 누가 잘못하는 걸 보면 꼭 참견을 하는 그러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견하는 음란죄를 다 지키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관심의 음란죄에 걸리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자꾸 갖게 되니까 관심의 음란죄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노라면 살아나가노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의식하지 않는 단계

이 사람은 관심을 갖지 않는 단계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나를 의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자존심 음란죄니까 나라는 것을 의식하지 말라. 그래서

나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의식이 되는데 어떻게 해. 그것도 역시 나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니까 뚝이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됐느냐하면 산에 올라가서 산을 개간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뺨장을 벗기고 바위 같은 것이 나오면 바위 같은 걸 오함마로 깨서 부셔가지고 그걸 다 치우고 밭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비지땀이 흘려서 작업복이 평평 젖어서 팔꿈치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고, 바짓가랑이에서 땀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이 큰 바위를 오함마로 깨기 위해서 때리는데 그게 철분이 있는 돌이니까 암만 때려도 금도 안 가고 깨지지 않는 겁니다. 그걸 오함마로 백 번 정도 때리니까 금이 가요. 오함마로 큰 바위를 깨서 전부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지간히 아주 끈질긴 사람이죠?

오함마를 가지고 그 바위를 깨고 깨다가 너무나 무 힘드니까 이 사람이 기절을 해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땅바닥에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이 사람이 한 시간인가 두 시간 만에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정신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또 오함마를 들고 바위를 깨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은 반대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바로 깨어나자마자 일어나서 또 깨기 시작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긴자가 되다

이 사람이 그렇게 그 밭을 개간하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소변으로 시커먼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소변으로 피가 쏟아져 나오니까 그 다음에 해와 이긴

자한테 가서 폼 노트를 읽으니까 "이제 다 이겨가고 있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밥 먹으러 갔을 때에 해와 이긴자 큰 아들이 주먹따귀를 갈기는 겁니다. 그 조그마한 사람이 때려가지고 간에 기별이 가졌어요? 그 사람이 때려가지고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 이 사람이 그걸 맞으면서 하나님한테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이길 수 없는 이런 시험을 이기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겼다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튿날 밀실 식구들, 약 30여 명을 집합시켜 놓고 마당에서 이 사람을 가운데에 세워놓고 "조 사장이 이긴자가 됐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이겼나요. 하나님이나 나를 이겼죠?' 이렇게 속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이긴자가 바로 "또, 이긴자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이긴자가 되어가지고 얼마동안 가니까 "완성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흠과 티가 없다. 너는 완성자가 됐다! 완성자라는 건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다. 풍구덩이에 빠졌어도 또 영적으로 풍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이 더러워졌어도 너는 정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완성자가 되어가지고 밀실 식구들의 죄를 담당하는 생활을 했던 겁니다. 1년 동안 죄를 담당하는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밀실 식구들이 의인들이 한 명 한 명 되어 갈 때에 전도하려고 나가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1981년도 8월 18일 날, 역곡에 나와서 전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날에 이른 겁니다.*

2003년 4월 28일 말씀 중에서

[연재]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피의 변화

아주 오랜 옛날 사람들은 신(神)을 수(數)나 부호, 어떤 표식을 가지고 상징하던 때가 있었고, 또 어떤 시대에는 큰 고목이나 호수 바다, 호랑이나 곰, 용 등을 신이라 여기던 때도 있었어요. 또 한참 세월이 흘러서는 보이지 않는 영(靈)을 신이라 믿었고, 그 신이 하늘과 광활한 우주 어딘가에 거한다고 상상했다.

인간이 만든 신

이러한 신의 변화된 성상(性狀)과 관념을 조금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긴 설명이 필요없이 쉽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쯤은 알 것이다. 하지만 그릇된 신념과 종교적 독선에 빠진 사람은 이것을 모른다. 세상 말로 도토리 키 재기라는 말이 있듯이 그만그만한 사람과 집단은 더 높은 차원을 모르게 되어 있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행복, 더 온전한 자유를 꿈꾸지 않는 사람과 집단은 그 틀 안에 있는 것이 비극이요 불행이라는 사실조차 전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아무리 위대한 스승(구세주), 엄청난 진리가 그 앞에 있어도 어떤 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빛)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인간 자신 속에 신성

이 감춰져 있고,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무수한 신들이 만들어졌다는 평범한 진리를 이해를 못한다. 스스로가 무지의 감옥(거짓 자아)에 갇혀 더 큰 세계(신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태초부터 하늘의 뜻이 한민족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간파한 파괴와 멸망의 신, 마귀의 계략으로 천손민족의 정체성을 잃게 하고 제정신을 잃게 하여 혼란에 빠뜨리려 하였지만, 하나님의 태초부터의 원대한 계획과 뜻이 굳건히 약속되어 있는 한민족을 통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막진 못한다.

하늘의 뜻을 막는 자들이여! 독일의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일찍이 강조했듯이 모르는 것(하늘의 뜻)에 대해서는 침묵하라는 것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말과 주장(마귀 앞잡이 노릇)을 참 많이 하게 된다.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잘못된 것을 전혀 인류와 하늘의 뜻의 앞길을 방해한다면 '침묵은 금이다' 라는 일본의 속담처럼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다. 사악한 힘과 세력을 등에 업고 비진리를 참진 라인양 속이는 것은 인류의 안녕과 번영과 성장에 큰 해악을 끼치는 일이 되며, 지상천국 건설을 방해하는 마귀 역사가 된다.

신의 뜻을 이루는 한민족, 천손민족



우리 한민족의 시조 단군

이미, 우리 한민족은 상고시대부터 인간이 바로 신임을 천명한 하늘의 자손이다. 하늘의 자손이 아니면 그와 같은 사상과 믿음을 낼 수가 없다. 그 전통과 맥이 어느 순간에 끊기는 듯 보였지만, 유구한 역사 속에 그 사상과 맥은 비밀한 가운데 한민족의 핏줄을 타고 이어져 왔던 것이다. 왜 우리 민족이 천손민족일 수밖에 없는가?

한민족은 하늘을 마음속에서 믿고 따르며 섬긴다. 매사에 하늘의 뜻을 묻고, 하늘의 사명을 이 땅에서 펼치려고 노력한다. 그 하늘의 뜻은 이 땅 위에 죽음이 없는 행복만이 가득한 지

상천국을 건설하는 일이다. 하늘의 뜻을 대대손손 계승하여 하늘에 제사 지내고, 그 유업을 이어받는 민족을 천손민족이라고 하는 것이다.

서구의 산물인 인간 위에 군림하는 신, 그러면서 황금만능주의와 물질문명이 가져온 물신주의(物神主義)가 전 지구적 재앙을 몰고 온 이때, 결국 인간 자신이 신임을 밝히 알고 다시 신으로 돌아가기 위한 중생(重生)과 부활(復活)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절체절명의 지구적 과도기에 천손민족인 한민족의 주도적 역할은 그 어떤 시기보다 막대하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미래는 위험한 데이터고 시대?

서양의 과학과 기술 지상주의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생명공학 사이보그 공학 비유기체 합성 등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업그레이드 할 기술이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 기술들이 단순한 업그레이드를 넘어 마침내 인간을 불사신의 경지로 끌어 올릴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현생 인류와는 전혀 다른 초인간의 탄생이 목전에 와 있다고 한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그 마음자리에 완전히 물신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도래한다면 가히 전례없는 공포의 세계가 전개될 것이다.

지금도 네비게이션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고, 검색 결과에 따라 맛집에 가고, 내 취향을 반영해서 추천된 영화를 보고, 내 생체리듬에 따라 운동하는 등등 이미 우리는 알고리즘의 추천에 따라 움직이는 데 익숙하다. 이런 흐름에 점점 속도가 붙으면 결국 알고리즘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신성(神性)의 자리에 지식과 정보 과학만능주의가 점령한 그 결과는 결국, 인류와 우주의 파괴와 멸망을 초래할 수순을 밟을 지도 모른다.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 박사

는 앞으로 전개될 과학만능의 시대에 "인간은 그저 만물인터넷을 창조하는 도구이며, 만물인터넷은 결국 지구에서부터 은하 전체를 아우르고 나아가 우주 전체까지 확장될 것이며, 이런 우주적 규모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마치 신과 같은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모든 것을 통제할 것이고, 인간은 그 안으로 흡수될 것이다."

전통적인 종교는 당신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우주적 규모의 장대한 계획의 일부이고, 신은 매순간 당신을 지켜보며 당신의 생각과 감정에 신경 쓴다. 이제 데이터고는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은 거대한 데이터 흐름의 일부이고, 알고리즘은 항상 당신을 지켜보며 당신이 행동하고 느끼는 모든 것을 신경쓴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을 매우 흡족해 한다. 이렇게 본다면 데이터고야말로 역사상 최고라고 평가할 만하지 않은가? 게다가 그저 공허한 말뿐인 경전속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실현되는 진짜 천국을 보장하는 종교이니 말이다."라고 크게 경고한다.*

김주호 기자